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오직 벤처인만이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한해를 돌이켜볼 때다. 이런 때 개인 또는 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듯싶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 협회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터보테크, 로커스, 핸드소프트 등 39개 벤처기업에서 연간 1500여 명이 참여했다.

모금 운동을 시작한지 1주년이 되던 7월 3일에는 기금 가운데 1억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소아암 어린이 환자 컴퓨터 교육,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백혈병 어린이 인터넷 학습실 운영,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에 분할 지원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본 운동은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단 한 명이 참여해도, 단 1원을 기부해도 무방하다.

모금운동 사상 처음 시도되는 직장모금운동인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은 오직 '나눔의 정신'을 발현하는 벤처기업인만이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고대한다.



▲ 소아암 어린이 환자용 정보화센터 '셴틀누리' 개관식

• 알림 •

협회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장모금운동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심있는 벤처기업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회소식

전북지역 협회

도내 벤처, '키 커지는 잠옷' 개발



도내 벤처기업이 청소년들이 입고 자면 키가 커지는 잠옷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 '허보진'은 "청소년들이 잠을 잘 때 입고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키를 크게 하는 특수 잠옷 '자미술'을 개발했다"

고 밝혔다.

'자미술'은 특수 가공된 복합기능성 광물질섬유로 제작된 옷으로 수면시 착용하면 혈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농도가 최고 2.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깊은 잠에 빠지는 수면 3, 4기 단계가 전체 수면 시간의 20%에서 35~40%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분비되는 것으로 뼈끝에 붙어있는 성장판의 발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미술'은 숙면시간을 증가시켜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키가 커지는 원리이다.

허보진 박기원 박사는 "청소년들이 입시공부에 얽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제품의 개발에 나섰다"면서 "기능을 보강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투자마트 개최

전라북도도는 오는 11일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신기술펀드의 도내 투자 유도를 위한 벤처기업 투자마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보캐피탈과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신보창업투자 등의 펀드가 참여해 투자 가능 업체를 선정할 전망이다.